

80주년학생의날 선언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2009년11월3일(화) / 오후7시 / 명동

준비 : 80주년학생의날 기획단

진행순서

1. 퍼포먼스행진(7:00~7:50/명동거리)
2. 선언발표 기자회견(7:50~8:20/명동성당앞)
 - 선언소개
 - 참가학생발언
 - 선언문낭독
 - 8대요구안을 담은 풍등날리기

* 자료요청 및 문의 : 010-7270-1900(따이루)

80주년 학생의날 선언!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저항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져갔던 그 사건, 우리가 '학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온 그 사건 이후 80년이 흘렀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인이기 때문도, 그것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도 아니다. 잘못된 교육과 사회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선 학생들의 용기와 저항정신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1월 3일은 그 이후로도 제국주의나 독재 반대, 교육민주화 등을 외치며 학생들이 행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왔다.

학생들의 저항은 계속된다. 원래부터도 쌀쌀했던 한국 사회는, 이명박 정부 이후로 완전히 팡팡 얼어붙어가고 있다. 원래부터도 암울했던 학생인권과 교육의 현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들은 학생의날을 기념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잔소리하는 훈화말씀 같은 형식적인 기념이 아닌 우리들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학생의날 의미를 진정으로 기념하고자 80주년학생의날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뜨겁게 저항하고자 한다. 학생의 날이 담고 있는 저항의 정신은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학교 안팎에서 행동했던 그 모든 학생들, 그리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학생, 청소년들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압과 차별, 불의를 참아가며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 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인권을 차별 없이 존중받는 것, 우리에게 의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학교와 교육을 만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욱 더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이 사회의 의무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주권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주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며 이 선언을 발표한다.

1. 인권의 무덤에서 어떤 좋은 교육을 하실건가요? 학생인권보장!

인권은 타인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경우에도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나이가 적다고,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교칙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머리칼은 잘리고, 교복과 온갖 복장규제들이 강제되며 체벌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매일같이 학교 안에서 자행된다. 그밖에도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의 강제학습을 비롯하여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들은 말할 수 없이 많다.

10년 넘게 이런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고발과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인권을 아웃오브안중인 듯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라면서 ‘상벌점제’와 전자기기 금지 조례 등 한층 더 강력한 통제위주의 제도들을 내놓았고, ‘학교자율화’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자유를 짓밟을 학교의 횡포를 허용해버렸다.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우리를, 청소년을 과연 하나의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매우 몰지각한 태도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두발복장규제를 폐지하라. 0교시와 강제야자를 없애서 학생의 수면권과 자유를 보

장하라. 체벌과 상벌점제 등 우리에게 복종과 침묵만을 강요하는 폭력과 통제를 포기하라. 학생인권을 중심에 둔 전면적 교칙 개정을 요구한다. 80년을 맞이하는 학생의 날에 우리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1. 학생을 죽이는 막장교육도 교육인가요? 무한경쟁교육 중단!

오늘날 교육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거나 혹은 낙오자가 되거나. 우리는 친구와 경쟁에 미쳐 서로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싶다.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의 서로 다른 삶과 꿈을 무시하고 성적과 등수로만 값을 매기는 교육을 거부한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획일적인 경쟁은 교육이 아닌 고문이다.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현 정부의 정책들은 진정 ‘막장’스럽다. 학교와 학생의 줄세우기를 더욱 부추기는 일제고사 강행을 그만둬라. 돈 없으면 못 다니는 입시 자사고 만들기를 중단하고 입시를 위한 학교가 된 특목고에 제동을 걸어라. 대학입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경쟁에 기름을 붓는 3불정책 폐지는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거부한다. 차별과 경쟁으로만 이루어진 교육은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님을 선언한다. 우리들은 경쟁이 아닌 협동과 평등,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을 원한다. 시험을 위한 세뇌와 무한경쟁이 아닌 학문과 지혜, 삶에 도움이 될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교육을 원한다.

1. 학생들이 아메바로 보이나요? 표현의자유, 정치적권리보장!

표현의 자유와 참여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중요한 권리이다. 학교 안에서 전단지, 포스터 등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 시위 등 학생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학교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학교가 노예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교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생회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학교 운영 등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정책 결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교육감도 청소년들 손으로 뽑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학생들 또한 이 시대, 지금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참여의 권리, 정치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학생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들도, 민주주의도 박탈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리려는 시도에 청소년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1. 잘려야 할 사람은 양심교사가 아닐 텐데요? 해직교사복직!

일제교사 대신 체험학습을 갈 수 있다고 알려준 것을 이유로, 사학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이 있다. 불의를 보면 참으라는 것이 교육인가? 또한 민주주의와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도 있다.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 교육인가?

우리는 이러한 해직교사들의 상황이 교육 현실을 더욱 막장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교사가 잘려나가는 현실은 학생들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나 학교측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교사를 잘라버리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학교는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닌 다양한 토론과 소통의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부당한 사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1. 교육도 땅파서 할까요? 교육예산 확충! 교육환경개선!

교육은 헌법에서조차 보장한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 사회/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교육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진정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학교와 교육은 무상교육은커녕 콩나물교실에 화장실에 휴지조차 없는 너무나 암울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로 가고 대출을 통한 빚쟁이 양산을 살인등록금 대책이랍시고 내놓는가.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은 1조4천억 원이 삭감되었고, 여러 지역에서는 무상급식 도입이 무산되거나 기존에 하던 무상급식마저 줄여나가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콩나물교실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교육을 위해 부족한 교사수를 늘리기는커녕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친 대학 등록금도 모자라 학비가 천만 원에 이르는 귀족 자사고까지 등장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배움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이 사회의 책임이고 의무다.

1. 돈 뿌리며 자연파괴는 무슨 시추에이션? 4대강 삼질 중단!

한반도 대운하에서 나온 돌연변이인 '4대강 살리기'는 사실은 4대강 죽이기이고 거짓말로 가득 찬 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이 하는 일은 몇 년짜리 비정규직들을 양산하면서, 땅을 파내고 강물을 가두어 썩게 만들어 생태계를 죽이는 일밖에는 없다. 그런데도 부족한 교육, 복지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반대한다.

자연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다. 또한

우리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부동산, 건설 거품 경제 살리거나 임시방편조치 되지 못하는 비정규직대량양산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먹고 살 걱정을 덜 해도 될 질 좋은 경제 살리기와 복지 확충이다. 4대강죽이기사업 예산은 기업이나 '강부자'들이 아닌 보통의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써져야 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들을 낭비해가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삼질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1.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가진 사람들의 딸랑인가요? 언론악법 폐기!

언론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와 진실을 밝히고 전달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돈과 권력이 있냐 없냐와 무관하게 다양한 의견이 이야기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언론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언론보도가 판을 치고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기 까지 한다. 의견의 다양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재벌 언론들이 여론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언론악법은, 돈 많은 사람들과 기업 등이 언론에 개입하는 것을 규제하기는커녕 부채질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발언을 더 규제하며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언론악법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한나라당은 이러한 비판에 귀를 닫은 채,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까지 어겨가며 강제로 통과시켰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의 절차적 형식까지 무시한 폭거였다고 할 수 있다. 편법으로나 적법으로나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언론악법을 당장 폐기하라.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언론에 참여하고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1. 힘없는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잠이옵니까? 용산참사해결!

올해 1월, 용산에서 사람이 죽었다. 철거민들의 생존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하다 시민5명과 경찰1명이 안타깝게 사망한 용산참사가 일어났다. 이 억울한 죽음에 누구하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이 벌써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참사해결을 위하기보다는 앵무새처럼 준법만을 외치면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용산참사를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인간의 생명과 인권보다 막개발 이익과 시민위에 군림한 공권력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생명과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막개발 정책은 집값, 땅값을 올리고 청소년을 비롯하여 이 사회에 사는 돈 없는 사람들의 주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버리고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해결되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고도 당연한 요구이다. 우리의 요구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차별과 경쟁과 폭력에 찢은 이 사회가 바뀔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저항할 것이다.

2009년 11월 3일

80주년학생의날선언참가자

80주년 학생의날 선언

참가자 명단 (가나다순서)

강병표 (19) 경남 강유진 (15) 서울 강의정 (13) 서울 강재학 (17) 서울 강현구 (18) 서울 강현미 (18) 서울 고민경 (17) 서울 고민경 (17) 서울 고석진 (16) 서울 고석진 (19) 서울 고영임 (17) 서울 고은서 (14) 서울 곽연정 (17) 서울 곽조효 (16) 서울 구수진 (15) 천 권미현 (14) 인천 권성완 (17) 서울 권세점 (14) 서울 권예리 (17) 서울 권오선 (17) 경남 권은경 (17) 경북 권지은 (14) 서울 기영미 (17) 서울 김가경 (16) 경기 김가현 (14) 서울 김규리 (14) 서울 김그림 (18) 충남 김나연 (17) 경기 김나형 (17) 경기 김남이 (17) 경기 김다혜 (17) 서울 김다희 (15) 경기 김단비 (17) 서울 김대영 (14) 경기 김도경 (13) 서울 김도윤 (17) 서울 김동은 (17) 경기 김미혜 (17) 서울 김민경 (17) 서울 김민국 (18) 서울 김민우 (17) 경기 김민정 (15) 서울 김민정 (18) 서울 김보욱 (14) 서울 김보혜 (18) 서울 김빛나 (17) 서울 김새미 (17) 경기 김설주 (14) 서울 김세진 (15) 서울 김소리 (18) 서울 김솔 (17) 서울 김수연 (14) 서울 김수연 (18) 서울 김수영 (19) 서울 김수현 (17) 경기 김솔기 (17) 서울 김아름 (17) 서울 김아림 (16) 경기 김아연 (13) 서울 김아연 (15) 대구 김애슬 (17) 서울 김영서 (17) 서울 김영섭 (19) 서울 김영인 (17) 경기 김예원 (19) 경기 김예지 (14) 서울 김예지 (15) 경기 김예진 (15) 서울 김우재 (17) 경기 김유경 (17) 서울 김유림 (15) 서울 김유진 (14) 서울 김유진 (18) 부산 김윤우 (16) 경기 김윤지 (17) 경기 김은보 (17) 서울 김은비 (16) 서울 김은영 (18) 서울 김은진 (14) 서울 김인식 (18) 서울 김재훈 (18) 서울 김정민 (17) 서울 김정연 (16) 경기 김정우 (14) 서울 김정우 (17) 서울 김정훈 (19) 서울 김종광 (18) 서울 김준영 (17) 서울 김지선 (17) 서울 김지수 (18) 서울 김지윤 (19) 서울 김지은 (17) 경기 김지인 (18) 서울 김진태 (17) 서울 김창균 (17) 서울 김채련 (16) 전북 김태성 (17) 서울 김태준 (17) 충북 김태형 (14) 서울 김태희 (19) 대전 김택현 (17) 서울 김해리 (15) 서울 김현아 (18) 서울 김현주 (14) 서울 김현지 (16) 경기 김현진 (19) 서울 김형우 (18) 경기 김혜림 (19) 경북 김혜선 (14) 경기 김혜선 (17) 경북 김혜연 (14) 서울 혜진 (17) 서울 김호연 (19) 서울 김화진 (17) 서울 김희수 (14) 경기 나종찬 (15) 서울 남궁설 (15) 경기 남승원 (18) 서울 남희수 (14) 서울 노영재 (17) 서울 노지은 (15) 서울 노해운 (19) 서울 도경윤 (17) 경기 류경숙 (18) 경북 맹상영 (19) 서울 문석희 (17) 경기 문성주 (18) 울 문정은 (15) 인천 문종민 (15) 경기 문지애 (14) 서울 문지원 (18) 서울 병수 (17) 서울 박가은 (14) 서울 박강호 (16) 경기 강호 (16) 경기 박다솔 (18) 서울 박명훈 (18) 서울 박미리내 (17) 경기 박민지 (17) 경기 박상규 (17) 서울 박상현 (18) 서울 박선영 (17) 경기 박성민 (15) 서울 박성원 (18) 서울 박성훈 (18) 서울 박세영 (14) 서울 박세훈 (14) 서울 박소진 (15) 서울 박솔지 (17) 서울 박수현 (16) 부산 박승윤 (13) 경기 박예슬 (16) 서울 박은지 (17) 서울

박인규 (17) 서울 박인주 (17) 서울 박재우 (17) 서울 박재형 (18) 서울 박정민 (14) 서울 박정호 (18) 서울 박주옥 (19) 서울 박주은 (17) 경북 박준범 (14) 경기 박준태 (17) 서울 박지애 (18) 서울 박진희 (16) 경기 박찬석 (17) 울 박초롱 (16) 경기 박혜린 (18) 경기 박혜인 (17) 경기 박홍돈 (13) 서울 박희정 (18) 서울 배선욱 (15) 서울 배자현 (15) 서울 배정원 (13) 서울 배정은 (19) 부산 배지원 (14) 서울 백현영 (14) 서울 변아영 (17) 울산 사혜민 (19) 서울 서미원 (18) 서울 서슬진 (17) 서울 서유리 (17) 기 서재근 (17) 서울 서정민 (17) 서울 서지수 (17) 서울 서지원 (14) 서울 서푸름 (15) 인천 석미연 (18) 서울 선미 (15) 서울 성상영 (19) 경남 성수진 (16) 서울 성주은 (17) 서울 소진호 (18) 강원도 소현중 (15) 서울 손동환 (17) 서울 손아란 (18) 서울 손유나 (17) 경기 손혜주 (18) 서울 송아라 (17) 경기 송지희 (17) 경기 송해진 (17) 서울 송호현 (15) 서울 신가영 (18) 서울 신동인 (19) 경남 신수미 (16) 서울 신유정 (17) 경기 신윤혁 (14) 서울 신은진 (14) 서울 신지수 (17) 서울 신찬미 (17) 경기 신혜규 (18) 서울 신혜인 (15) 서울 신혜지 (15) 전북 안다은 (15) 경기 안보람 (15) 인천 안소라 (19) 서울 안숙빈 (13) 서울 안지연 (15) 서울 안지현 (18) 서울 안형전 (14) 서울 안취련 (14) 경남 안희연 (16) 서울 양다슬 (16) 서울 양아영 (15) 서울 양예은 (16) 울산 양지은 (18) 서울 여지은 (17) 서울 염수정 (19) 서울 오다교 (19) 서울 오다혜 (19) 서울 오상민 (17) 경기 오송주 (18) 전북 오승준 (18) 서울 오승현 (18) 서울 오하늘 (17) 경기 한솔 (17) 경기 현지 (14) 서울 용소정 (17) 서울 용환욱 (18) 서울 우성훈 (18) 전북 우지현 (13) 서울 원나현 (13) 경기 위아름 (18) 서울 유리나 (15) 경기 유상근 (18) 서울 유시은 (15) 경기 유영준 (17) 경기 유정민 (16) 서울 유태은 (14) 서울 유태희 (18) 서울 유효상 (19) 서울 윤다울 (14) 서울 윤대환 (11) 서울 윤성은 (14) 경기 윤성진 (17) 서울 윤은영 (18) 서울 윤종서 (16) 서울 윤초이 (14) 서울 윤하은 (17) 서울 은수홍 (14) 서울 이가은 (17) 경기 이고은 (16) 대구이나영 (19) 서울 이다연 (16) 경기 이다운 (17) 서울 이다정 (19) 경기 이대희 (18) 서울 이도이 (17) 경기 이동민 (14) 서울 이동민 (17) 경기 이민주 (15) 대구이상은 (16) 대구이서윤 (15) 경기 이서희 (16) 경기 이석진 (14) 서울 이석현 (17) 서울 이선민 (17) 서울 이성범 (17) 경기 이성혁 (18) 서울 이세원 (15) 경기 이소현 (15) 서울 이소희 (14) 서울 이수현 (17) 서울 이순미 (14) 서울 이스림 (15) 인천 이슬기 (17) 경기 이슬기 (19) 서울 이승연 (18) 서울 이아라 (16) 인천 이아람 (17) 서울 이아름 (14) 서울 이예솔 (18) 서울 이에지 (13) 서울 이원섭 (19) 서울 이원형 (18) 경기 이유정 (17) 경기 이유주 (19) 경기 이은솔 (17) 서울 이은주 (15) 경기 이장원 (17) 경기 이재연 (18) 경기 이재진 (18) 서울 이재철 (19) 서울 이정옥 (17) 서울 이정은 (14) 서울 이정은 (14) 서울 이정은 (18) 경기 이정훈 (18) 서울 이종현 (18) 서울 이종형 (19) 서울 이종훈 (17) 서울 이준영 (17) 서울 이준형 (17) 경기 이지나 (19) 서울 이지민 (17) 경기 이지예 (18) 서울 이지현 (15) 서울 이지혜 (17) 서울 이지호 (17) 경북이지홍 (17) 서울 이진영 (16) 서울 이진영 (17) 서울 이채린 (16) 경기 이채빈 (13) 서울 이충원 (17) 서울 이필준 (18) 서울 이하연 (14) 서울 이하연 (16) 경기 이해련 (18) 서울 이현욱 (18) 인천 이현지 (14) 서울 이해영 (16) 서울 이희라 (18) 서울 이희진 (15) 경기 임예린 (17) 서울 임이정 (15) 전북임지영 (16) 서울 임지영 (18) 서울 임지혜 (19) 서울

장다솔 (14) 서울 장미영 (14) 서울 장성지 (18) 서울 장신현 (17) 서울 장예진 (15)
 서울 장유재 (17) 서울 장윤정 (17) 서울 장윤하 (14) 서울 장주성 (17) 서울 장지은
 (17) 인천 장태준 (15) 서장한준 (14) 서울 장혜수 (14) 경기 전재린 (14) 경기 전준영
 (17) 강원도전혜원 (17) 경기 전희현 (17) 경기 정광영 (18) 경기 정기웅 (17) 서울
 정다솜 (15) 경기 정명희 (18) 서울 정문정 (16) 서정민경 (17) 서울 정민지 (17) 서울
 정보라 (18) 서울 정선호 (18) 서울 정세일 (14) 서울 정소연 (17) 서울 정아영 (18)
 경기 정애라 (17) 강원도정에스더 (18) 서울 정원송 (19) 서울 정은솔 (17) 서울
 정은진 (17) 서울 정인웅 (17) 서울 정재영 (18) 전북 정재원 (17) 경기 정재호 (19)
 서울 정지원 (18) 서울 정진해 (14) 경기 정택범 (14) 서울 정필재 (14) 서울
 정현수 (14) 서정현아 (19) 서울 정호용 (18) 전북 제찬호 (17) 서울 조계형 (18)
 서울 조만성 (16) 서울 조소희 (17) 경기 조연경 (18) 서울 조유진 (19) 서울 조은경
 (14) 서울 조은비 (16) 경기 조은상 (17) 경기 조정연 (15) 서울 조종래 (18) 서울
 조태연 (16) 서울 조혜진 (17) 서울 주승환 (19) 서울 주장현 (18) 서울 진단미 (14)
 서울 진선아 (14) 서울 진소영 (14) 서울 진예린 (14) 서울 차민준 (17) 서울 채민지
 (17) 서울 천가영 (18) 서울 최미소 (16) 서울 최민식 (19) 서울 최민진 (19) 서울
 최성훈 (18) 서울 최영우 (19) 서울 최예찬 (18) 서울 최유미 (18) 서울 최유정 (17)
 서울 최윤경 (17) 서울 최윤아 (19) 서울 최윤영 (18) 서울 최은선 (18) 서울 최은정
 (16) 서울 최재인 (14) 경기 최정민 (18) 서울 최정원 (18) 서울 최종민 (16) 경기
 최준우 (14) 서울 최진아 (16) 인천 최진주 (17) 경기 최찬미 (16) 서울 최혜인 (18)
 서울 추세린 (15) 서울 추연주 (17) 서울 표진주 (15) 경기 하진아 (17) 서울
 하현빈 (17) 경기 한김종희 (17) 서울 한보현 (15) 서울 한서현 (16) 경기
 한성은 (18) 경기 한승희 (17) 서울 한용철 (14) 서울 한주형 (15) 서울 한지민
 (17) 서울 한혜인 (18) 서울 함상희 (16) 전북 허남일 (19) 서울 허다경 (15) 서울
 허세림 (14) 서울 유정 (17) 서울 지은 (17) 서울 허현선 (18) 서울 홍다빈
 (17) 서울 홍성원 (15) 서울 홍승기 (19) 서울 홍유경 (14) 경기 홍은정 (16)
 경북 황길연 (19) 경기 황보빈 (15) 충북 황영심 (19) 서울 황초이 (18) 경기
 황하리 (19) 서울 황하영 (15) 서울

총 472명

80주년 학생의 날 선언

참가단체 명단 (가나다순)

-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 교육공동체 나다
-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모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청소년다함께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80주년 학생의날
우리들의 뜨거운 저항!
뜨거운 외침!

11월30일 80주년
학생의날 선언!

- ★ 인권의 무덤에서 어떤 좋은 교육을 하실건가요? 학생인권보장!
- ★ 학생을 죽이는 막장교육도 교육인가요? 무한경쟁교육 중단!
- ★ 학생들이 아메바로 보이나요? 표현의자유, 정치적권리보장!
- ★ 잘려야 할 사람은 양심교사가 아닐 텐데요? 해직교사복직!
- ★ 교육도 땅파서 할까요? 교육예산 확충! 교육환경개선!
- ★ 돈 뿌리며 자연파괴는 무슨 시추에이션? 4대강 삼질 중단!
- ★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가진 사람들의 딸랑인가요? 언론악법 폐기!
- ★ 힘없는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잠이옵니까? 용산참사해결!

80주년 학생의날 선언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저항의 불씨가 전국으로 번져갔던 그 사건, 우리가 ‘학생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해온 그 사건 이후 80년이 흘렀다.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인이기 때문도, 그것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도 아니다. 잘못된 교육과 사회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선 학생들의 용기와 저항정신이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1월 3일은 그 이후로도 제국주의나 독재 반대, 교육민주화 등을 외치며 학생들이 행동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왔다.

학생들의 저항은 계속된다. 원래부터도 쌀쌀했던 한국 사회는, 이명박 정부 이후로 완전히 팡팡 얼어붙어가고 있다. 원래부터도 암울했던 학생인권과 교육의 현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들은 학생의날을 기념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잔소리하는 훈화말씀 같은 형식적인 기념이 아닌 우리들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학생의날 의미를 진정으로 기념하고자 80주년학생의날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뜨겁게 저항하고자 한다. 학생의 날이 담고 있는 저항의 정신은 민주화와 인권을 요구하며 학교 안팎에서 행동했던 그 모든 학생들, 그리고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던 학생, 청소년들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미래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압과 차별, 불의를 참아가며 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 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인권을 차별 없이 존중받는 것, 우리에게 의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학교와 교육을 만드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더욱 더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이 사회의 의무임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가 우리의 주권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주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며 이 선언을 발표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에 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고도 당연한 요구이다. 우리의 요구들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차별과 경쟁과 폭력에 찢은 이 사회가 바뀔 때까지, 우리는 뜨겁게 저항할 것이다.

2009.11.3
80주년 학생의 날 선언자

1. 힘없는 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잠이옵니까? 용산참사해결!

올해 1월, 용산에서 사람이 죽었다. 철거민들의 생존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특공대를 투입해서 진압하다 시민5명과 경찰1명이 안타깝게 사망한 용산참사가 일어났다. 이 억울한 죽음에 누구하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책임지는 사람 한 명 없이 벌써 1년이 다되어 가고 있다.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참사해결을 위하기보다는 앵무새처럼 준법만을 외치면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지금 용산참사를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인간의 생명과 인권보다 막개발 이익과 시민위에 군림한 공권력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가 생명과 인권을 짓밟으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막개발 정책은 집값, 땅값을 올리고 청소년을 비롯하여 이 사회에 사는 돈 없는 사람들의 주거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가 지금과 같은 태도를 버리고 용산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해결되도록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나설 것을 요구한다.



1. 인권의 무덤에서 어떤 좋은 교육을 하실건가요? 학생인권보장!

인권은 타인의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경우에도 무시되어서 안된다. 그런데 나이가 적다고, 또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교칙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머리칼은 잘리고, 교복과 온갖 복장규제들이 강제되며 체벌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매일같이 학교 안에서 자행된다. 그밖에도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의 강제학습을 비롯하여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들은 말할 수 없이 많다.

10년 넘게 이런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고발과 문제제기가 이어져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인권은 아웃오브안중인 듯 “법과 규칙이 살아있는 학교”라면서 ‘상벌점제’와 전자기기 금지 조례 등 한층 더 강력한 통제위주의 제도들을 내놓았고, ‘학교자율화’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의 자유를 짓밟을 학교의 횡포를 허용해버렸다. 이러한 정부의 행동은 우리를, 청소년을 과연 하나의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매우 몰지각한 태도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두발복장규제를 폐지하라. 0교시와 강제야자를 없애서 학생의 수면권과 자유를 보장하라. 체벌과 상벌점제 등 우리에게 복종과 침묵만을 강요하는 폭력과 통제를 포기하라. 학생인권을 중심에 둔 전면적 교칙 개정을 요구한다. 80년을 맞이하는 학생의 날에 우리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1. 학생을 죽이는 막장교육도 교육인가요? 무한경쟁교육 중단!

오늘날 교육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선택지는 오직 두 가지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죽을힘을 다하거나 혹은 낙오자가 되거나. 우리는 친구와 경쟁에 미쳐 서로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고 싶다. 우리는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우리의 서로 다른 삶과 꿈을 무시하고 성적과 등수로만 값을 매기는 교육을 거부한다.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획일적인 경쟁은 교육이 아닌 고문이다.

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현 정부의 정책들은 진정 '막장'스럽다. 학교와 학생의 줄 세우기를 더욱 부추기는 일제고사 강행을 그만둬라. 돈 없으면 못 다니는 입시 자사고 만들기를 중단하고 입시를 위한 학교가 된 특목고에 제동을 걸어라. 대학입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경쟁에 기름을 붓는 3불정책 폐지는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거부한다. 차별과 경쟁으로만 이루어진 교육은 더 이상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님을 선언한다. 우리들은 경쟁이 아닌 협동과 평등,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을 원한다. 시험을 위한 세뇌와 무한경쟁이 아닌 학문과 지혜, 삶에 도움이 될 지식을 익힐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위한 교육을 원한다.



1.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가진 사람들의 딸랑인가요? 언론악법

폐기!

언론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와 진실을 밝히고 전달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또한 언론은 돈과 권력이 있냐 없냐와 무관하게 다양한 의견이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언론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언론보도가 판을 치고 때로는 진실을 왜곡하기까지 한다. 의견의 다양성은 보장되지 못하고 재벌 언론들이 여론을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언론악법은, 돈 많은 사람들과 기업 등이 언론에 개입하는 것을 규제하기는커녕 부채질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발언을 더 규제하며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언론악법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한나라당은 이러한 비판에 귀를 닫은 채, 국회에서 정해진 절차까지 어겨가며 강제로 통과시켰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의 절차적 형식까지 무시한 폭거였다고 할 수 있다. 편법으로나 적법으로나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언론악법을 당장 폐기하라.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언론에 참여하고 사회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



1. 돈 뿌리며 자연파괴는 무슨 시추에이션? 4대강 삼질 중단!

한반도 대운하에서 나온 돌연변이인 '4대강 살리기'는 사실은 4대강 죽이기이고 거짓말로 가득 찬 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4대강 사업이 하는 일은 몇 년짜리 비정규직들을 양산하면서, 땅을 파내고 강물을 가두어 썩게 만들어 생태계를 죽이는 일밖에는 없다. 그런데도 부족한 교육, 복지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죽이기 사업에 반대한다.

자연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다. 또한 우리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부동산, 건설 거품 경제 살리거나 임시방편조차 되지 못하는 비정규직대량양산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먹고 살 걱정을 덜 해도 될 질 좋은 경제 살리기와 복지 확충이다. 4대강죽이기사업 예산은 기업이나 '강부자'들이 아닌 보통의 다수의 사람들을 위해 써져야 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들을 낭비해가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삼질하는 4대강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1. 교육도 땅파서 할까요? 교육예산 확충! 교육환경개선!

교육은 헌법에서조차 보장한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 사회/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무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돈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교육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진정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무상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학교와 교육은 무상교육은커녕 콩나물교실에 화장실에 휴지조차 없는 너무나 암울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다. 반값 등록금 공약은 어디로 가고 대출을 통한 빚쟁이 양산을 살인등록금 대책이랍시고 내놓는가. 가뜰이나 부족한 교육예산은 1조4천억원이 삭감되었고, 여러 지역에서는 무상급식 도입이 무산되거나 기존에 하던 무상급식마저 줄여나가는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콩나물교실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교육을 위해 부족한 교사수를 늘리기는커녕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친 대학등록금도 모자라 학비가 천만 원에 이르는 귀족 자사고까지 등장했다.

우리는 요구한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배움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것이 국가와 이 사회의 책임이고 의무다.



1. 학생들이 아메바로 보이나요? 표현의자유, 정치적권리보장!

표현의 자유와 참여할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중요한 권리이다. 학교 안에서 전단지, 포스터 등으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 시위 등 학생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는 학교의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학교가 노예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닌 제대로 된 교육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교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학생회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학교 운영 등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정책 결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인 교육감도 청소년들 손으로 뽑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학생들 또한 이 시대, 지금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참여의 권리, 정치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학생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들도, 민주주의도 박탈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버리려는 시도에 청소년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1. 잘려야 할 사람은 양심교사가 아닐 텐데요? 해직교사복직!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을 갈 수 있다고 알려준 것을 이유로, 사학 내부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이 있다. 불의를 보면 참으라는 것이 교육인가? 또한 민주주의와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직당한 교사들도 있다.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것이 교육인가?

우리는 이러한 해직교사들의 상황이 교육 현실을 더욱 막장으로 몰아가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교사가 잘려나가는 현실은 학생들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나 학교측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교사를 잘라버리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학교는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닌 다양한 토론과 소통의 공간이어야 할 것이다. 부당한 사유로 해직당한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

